

공모 후기

대하문예의 질적 발전과 학내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시된 시문예 현상 공모가 올해로 대변제를 맞이하였다. 이번 시문예에는 박준수(국문·4)군이 '별이 있어 오지 않는 친구에게'로 당선된 영광을 차지했으며, 김한용(사과대 경영·4)군의 '귀향과 귀향원(국문·4)군의 '시간여행'이 각각 가작에 당선되었다. 이외에도 입선에는 최인용(우주·3)군의 '오월과 송대원(정경대 경영·2)군의 '나일 뱀'은 가솔 속에서' 그리고 배노남(국문·2)군의 '총로2가, 또는 명동에서 5 등 3작품이 선정되었다. 심사는 나호열(시인)씨가 예심을 맡아 14명의 작품을 가려내고, 박이도(문리대, 시인)교수, 김재홍(문리대, 문학평론가)교수, 김중희(문리대, 문화평론가)장사, 시인 선정원씨가 본심을 보고 본사 주관 시석우교수나 심사위원장을 맡았다. 심사 위원들은 "창작심리와 수용성의 측면, 아직 학생이지만 문장에 나타난 기교보다는 앞으로의 가능성에 중점을 두어 작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의 시문예는 모두 66명이 34631원(서울 27명, 1명 79원/수원39명, 1명52원)을 총모았는데 수원필포시에서 39명이 응모하여 응모자 수에서는 서울을 10명넘게 앞질렀다. 이러한 양적인 성과는 지난해에 한 편도 입선작이 없었던 것과 달리 한 편의 가작과 한 편의 입선작을 가져왔다. 국문과에서 3명이나 입선작이 문제가 될 수 있었으나 응모자의 이들을 지은 상태에서 작품을 가려놓은 후에 특등과에 편중된다 하여 당선률 축소하는 것은 더 타당성이 없다 하였다. 올해에는 응모기간이 짧았지만 학생들의 참여는 이전에 못지 않았다. 학생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에 힘입어 (대학주보)는 대학문예의 활성화에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독자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충고, 비판이 있기를 바란다. (문화부)

심사평

제4회 대학주보 시문예 현상 공모에 작품을 낸 예비시인은 모두 66명, 작품 수로는 총 3백61편에 이르렀다. 예년의 높은 관심과 응모도가 올해도 그대로 이어진 것 같다. 심사위원들은 본심 대상작들의 시를 모두 둘러싸고 입선과 가작의 평가를 종합하여 당선, 가작, 입선의 등위 안에 6편과 그 작품을 먼저 선정했다. 정 다음 다시 한번 이 시들을 정

시적 완성도 중시

독하여 메시지의 전달이나 형식적인 제재로 시로서의 완성도가 높은 순으로 당선 1관, 가작 2관, 입선 3관을 결정했다. 당선작으로 뽑힌 '별이 있어 오지 않는 친구에게(박준수)'는 시적 언어를 다루는 재질과 처음의 시상을 두터웠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당선자는 이번 공모에서 상당히 많은 분량의 작품을 응모했는데 그 시력의 수준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나타나 있고 가작이 떨어지는 데까지 거의 발견되지 않아 평소에 작지 않은 습작을 쌓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여러 심사위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이러한 평가는 나온단 우리는 이 예비시인의 판단이 시가 뛰어나다는 청문이다. 오호러 그의 잠재적 가능성에 더 비중을 두어볼만하다. 심사위원 나호열

제4회 대학주보 시문예 현상공모

당선

멀리 있어
오지 않는 친구에게

박준수(국문·4)

기억 나니?
별들마저 서러워 하늘 가득
눈물 떨어진 밤
우리는 한 마디 말 없이
허공 한가운데를 응시하고 있었지
물안개는 강물을 거슬러
묵묵히 흐르고
너는 그렇게 평화로운 곳
안락하고 있는
좌절감으로 아파하였고
외쳐할 수 없는 사랑이라 했어
별빛이 너의 눈가에 까져
길-게
떨어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자
철새처럼 후두둑-
깃을 털고 일어났어
나는 작은 동행이 하나
물수제비로 띄워 보냈지
수면 위로 몸 던진 초승달
숨죽어 일렁이고
기억 나니?
지난 시대
가장 빛나던 우리의
옛 사랑

가작

김한용(사과대 경영·4)

1
우 우
울음처럼 기차는 달리고
나는 돌아오고 있었지.
聯속의 먼지물은 껍질처럼
내 고향의 오랜 목걸은
바람에 켜고
얼결의 시속에 떨어진 듯
떨린 겨울
거리는 낯선 여인들의 가슴처럼
스산했지
오래 길고 잡자는 성당의 문찌꺼기에
그대 눈물 흘리는 하늘
누군가 못을 박고 있었네
이렇게 돌아오고 싶진 않았어
떠와 소금의 집을 달려
또는 빛나는 새를 들고 싶었지
있어가고 사라지는 집들의 이맛은 추녀 끝에서
무한의 생명을 기리는
四季의 바다에
나는 늘 외로운 채 떠있는 나무

시간 여행

-A.D를 지나며

최종환(국문·4)

1
안녕하십니까가 여러분께 요긴한 물건 하나
권해드리려고 이자리에 있습니다. 예,
양면티슈이예요.
이것은 결코 여러분의 동정이나 손길을 구하려는
물건이 아닙니다. 저희 장애인들이 밤을 새워 만든 겁니다.
이중치솜과 안과 뼈이 튼튼한 털로 박혀있어 이를
개운하게 닦을 수 있고 또 빠른 사물에 양지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시중에서 이것을 팔고 있는 사치한인 주석하 하지만 여기서는 천원
천원짜리 한장만 팔겠습니다. 이 물건은 결코 여러분의 동정의 손길을
구하는 물건이 아니예요. 예.
2
남들은 부모 잘 만나 마음껏 공부하기도 하고
원하는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데 저는 열두살 때
부모남을 잃고 영양실조로 인하여 이렇게 다리를 절고
제 나이는 지금 열 여섯살인데 낮에는 신문과 돌리고 밤에는
대학생 형벌에서 공부를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사당동 삼 12번지에 사는데 현마전에 집주인 아주머니가
나는 돈이 없는데 돈을 이십만원 더 올려주실까요
나가라고 해서 형이 지휘할로 나가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사모님 사장님
형님 누나 성의껏 도와주세요. 좌절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① 시의 수평의 공평성, 작품의 질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 ② 입선작과 가작을 선정하는 시문예 현상 공모가 올해로 대변제를 맞이하였다.
- ③ 이번 시문예에는 박준수(국문·4)군이 '별이 있어 오지 않는 친구에게'로 당선된 영광을 차지했으며, 김한용(사과대 경영·4)군의 '귀향과 귀향원(국문·4)군의 '시간여행'이 각각 가작에 당선되었다.
- ④ 이외에도 입선에는 최인용(우주·3)군의 '오월과 송대원(정경대 경영·2)군의 '나일 뱀'은 가솔 속에서' 그리고 배노남(국문·2)군의 '총로2가, 또는 명동에서 5 등 3작품이 선정되었다.
- ⑤ 심사는 나호열(시인)씨가 예심을 맡아 14명의 작품을 가려내고, 박이도(문리대, 시인)교수, 김재홍(문리대, 문학평론가)교수, 김중희(문리대, 문화평론가)장사, 시인 선정원씨가 본심을 보고 본사 주관 시석우교수나 심사위원장을 맡았다.
- ⑥ 심사 위원들은 "창작심리와 수용성의 측면, 아직 학생이지만 문장에 나타난 기교보다는 앞으로의 가능성에 중점을 두어 작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⑦ 올해의 시문예는 모두 66명이 34631원(서울 27명, 1명 79원/수원39명, 1명52원)을 총모았는데 수원필포시에서 39명이 응모하여 응모자 수에서는 서울을 10명넘게 앞질렀다.
- ⑧ 이러한 양적인 성과는 지난해에 한 편도 입선작이 없었던 것과 달리 한 편의 가작과 한 편의 입선작을 가져왔다.
- ⑨ 국문과에서 3명이나 입선작이 문제가 될 수 있었으나 응모자의 이들을 지은 상태에서 작품을 가려놓은 후에 특등과에 편중된다 하여 당선률 축소하는 것은 더 타당성이 없다 하였다.
- ⑩ 올해에는 응모기간이 짧았지만 학생들의 참여는 이전에 못지 않았다.
- ⑪ 학생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에 힘입어 (대학주보)는 대학문예의 활성화에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독자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충고, 비판이 있기를 바란다.
- ⑫ (문화부)
- ⑬ 대하문예의 질적 발전과 학내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시된 시문예 현상 공모가 올해로 대변제를 맞이하였다.
- ⑭ 이번 시문예에는 박준수(국문·4)군이 '별이 있어 오지 않는 친구에게'로 당선된 영광을 차지했으며, 김한용(사과대 경영·4)군의 '귀향과 귀향원(국문·4)군의 '시간여행'이 각각 가작에 당선되었다.
- ⑮ 이외에도 입선에는 최인용(우주·3)군의 '오월과 송대원(정경대 경영·2)군의 '나일 뱀'은 가솔 속에서' 그리고 배노남(국문·2)군의 '총로2가, 또는 명동에서 5 등 3작품이 선정되었다.
- ⑯ 심사는 나호열(시인)씨가 예심을 맡아 14명의 작품을 가려내고, 박이도(문리대, 시인)교수, 김재홍(문리대, 문학평론가)교수, 김중희(문리대, 문화평론가)장사, 시인 선정원씨가 본심을 보고 본사 주관 시석우교수나 심사위원장을 맡았다.
- ⑰ 심사 위원들은 "창작심리와 수용성의 측면, 아직 학생이지만 문장에 나타난 기교보다는 앞으로의 가능성에 중점을 두어 작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⑱ 올해의 시문예는 모두 66명이 34631원(서울 27명, 1명 79원/수원39명, 1명52원)을 총모았는데 수원필포시에서 39명이 응모하여 응모자 수에서는 서울을 10명넘게 앞질렀다.
- ⑲ 이러한 양적인 성과는 지난해에 한 편도 입선작이 없었던 것과 달리 한 편의 가작과 한 편의 입선작을 가져왔다.
- ⑳ 국문과에서 3명이나 입선작이 문제가 될 수 있었으나 응모자의 이들을 지은 상태에서 작품을 가려놓은 후에 특등과에 편중된다 하여 당선률 축소하는 것은 더 타당성이 없다 하였다.
- ㉑ 올해에는 응모기간이 짧았지만 학생들의 참여는 이전에 못지 않았다.
- ㉒ 학생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에 힘입어 (대학주보)는 대학문예의 활성화에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독자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충고, 비판이 있기를 바란다.
- ㉓ (문화부)
- ㉔ 대하문예의 질적 발전과 학내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시된 시문예 현상 공모가 올해로 대변제를 맞이하였다.
- ㉕ 이번 시문예에는 박준수(국문·4)군이 '별이 있어 오지 않는 친구에게'로 당선된 영광을 차지했으며, 김한용(사과대 경영·4)군의 '귀향과 귀향원(국문·4)군의 '시간여행'이 각각 가작에 당선되었다.
- ㉖ 이외에도 입선에는 최인용(우주·3)군의 '오월과 송대원(정경대 경영·2)군의 '나일 뱀'은 가솔 속에서' 그리고 배노남(국문·2)군의 '총로2가, 또는 명동에서 5 등 3작품이 선정되었다.
- ㉗ 심사는 나호열(시인)씨가 예심을 맡아 14명의 작품을 가려내고, 박이도(문리대, 시인)교수, 김재홍(문리대, 문학평론가)교수, 김중희(문리대, 문화평론가)장사, 시인 선정원씨가 본심을 보고 본사 주관 시석우교수나 심사위원장을 맡았다.
- ㉘ 심사 위원들은 "창작심리와 수용성의 측면, 아직 학생이지만 문장에 나타난 기교보다는 앞으로의 가능성에 중점을 두어 작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㉙ 올해의 시문예는 모두 66명이 34631원(서울 27명, 1명 79원/수원39명, 1명52원)을 총모았는데 수원필포시에서 39명이 응모하여 응모자 수에서는 서울을 10명넘게 앞질렀다.
- ㉚ 이러한 양적인 성과는 지난해에 한 편도 입선작이 없었던 것과 달리 한 편의 가작과 한 편의 입선작을 가져왔다.
- ㉛ 국문과에서 3명이나 입선작이 문제가 될 수 있었으나 응모자의 이들을 지은 상태에서 작품을 가려놓은 후에 특등과에 편중된다 하여 당선률 축소하는 것은 더 타당성이 없다 하였다.
- ㉜ 올해에는 응모기간이 짧았지만 학생들의 참여는 이전에 못지 않았다.
- ㉝ 학생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에 힘입어 (대학주보)는 대학문예의 활성화에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독자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충고, 비판이 있기를 바란다.
- ㉞ (문화부)
- ㉟ 대하문예의 질적 발전과 학내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시된 시문예 현상 공모가 올해로 대변제를 맞이하였다.
- ㊱ 이번 시문예에는 박준수(국문·4)군이 '별이 있어 오지 않는 친구에게'로 당선된 영광을 차지했으며, 김한용(사과대 경영·4)군의 '귀향과 귀향원(국문·4)군의 '시간여행'이 각각 가작에 당선되었다.
- ㊲ 이외에도 입선에는 최인용(우주·3)군의 '오월과 송대원(정경대 경영·2)군의 '나일 뱀'은 가솔 속에서' 그리고 배노남(국문·2)군의 '총로2가, 또는 명동에서 5 등 3작품이 선정되었다.
- ㊳ 심사는 나호열(시인)씨가 예심을 맡아 14명의 작품을 가려내고, 박이도(문리대, 시인)교수, 김재홍(문리대, 문학평론가)교수, 김중희(문리대, 문화평론가)장사, 시인 선정원씨가 본심을 보고 본사 주관 시석우교수나 심사위원장을 맡았다.
- ㊴ 심사 위원들은 "창작심리와 수용성의 측면, 아직 학생이지만 문장에 나타난 기교보다는 앞으로의 가능성에 중점을 두어 작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㊵ 올해의 시문예는 모두 66명이 34631원(서울 27명, 1명 79원/수원39명, 1명52원)을 총모았는데 수원필포시에서 39명이 응모하여 응모자 수에서는 서울을 10명넘게 앞질렀다.
- ㊶ 이러한 양적인 성과는 지난해에 한 편도 입선작이 없었던 것과 달리 한 편의 가작과 한 편의 입선작을 가져왔다.
- ㊷ 국문과에서 3명이나 입선작이 문제가 될 수 있었으나 응모자의 이들을 지은 상태에서 작품을 가려놓은 후에 특등과에 편중된다 하여 당선률 축소하는 것은 더 타당성이 없다 하였다.
- ㊸ 올해에는 응모기간이 짧았지만 학생들의 참여는 이전에 못지 않았다.
- ㊹ 학생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에 힘입어 (대학주보)는 대학문예의 활성화에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독자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충고, 비판이 있기를 바란다.
- ㊺ (문화부)
- ㊻ 대하문예의 질적 발전과 학내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시된 시문예 현상 공모가 올해로 대변제를 맞이하였다.
- ㊼ 이번 시문예에는 박준수(국문·4)군이 '별이 있어 오지 않는 친구에게'로 당선된 영광을 차지했으며, 김한용(사과대 경영·4)군의 '귀향과 귀향원(국문·4)군의 '시간여행'이 각각 가작에 당선되었다.
- ㊽ 이외에도 입선에는 최인용(우주·3)군의 '오월과 송대원(정경대 경영·2)군의 '나일 뱀'은 가솔 속에서' 그리고 배노남(국문·2)군의 '총로2가, 또는 명동에서 5 등 3작품이 선정되었다.
- ㊾ 심사는 나호열(시인)씨가 예심을 맡아 14명의 작품을 가려내고, 박이도(문리대, 시인)교수, 김재홍(문리대, 문학평론가)교수, 김중희(문리대, 문화평론가)장사, 시인 선정원씨가 본심을 보고 본사 주관 시석우교수나 심사위원장을 맡았다.
- ㊿ 심사 위원들은 "창작심리와 수용성의 측면, 아직 학생이지만 문장에 나타난 기교보다는 앞으로의 가능성에 중점을 두어 작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가는 못말려!”



크라운 60년에 드라는
해가는 60가지 사랑이야기—
순수한 젊음, 순수한 사랑
젊은날의 아름다운 이야기속에
크라운 맥주가 있습니다.

자하 150미터의 100% 천연수소 만든

하이트 맥주